

2016년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8.26(금) 14:00~15:30

■ 주요 회의 내용

▲ 뉴스소재의 균형 및 앵커, 리포트 의견

- 세태에 다른 것이어서 패륜적인 강력범죄 등 어두운 뉴스가 많겠지만, 여전히 좋은 뉴스가 적어 아쉬움(김용직 위원)
- 매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뉴스워치' 남자 앵커의 멘트가 1. 힘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시청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2. 발음도 불명확해 내용전달이 제대로 안됨. 화면을 보고 청력을 집중해야만 알아들을 정도임. 3.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훈련을 거친 후 투입할 것을 건의함(신현택 부위원장)
- 국제뉴스 등에서 피디가 리포트를 하는데 전후 맥락 없이 기자들이 리포트를 하다가 갑자기 피디가 등장하니 배경이 궁금함. 보통 피디가 뉴스 리포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음(주철환 위원)

▲ 화면구성, 표현 개선필요

-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연합뉴스TV 영상은 지나치게 자료화면을 많이 사용함. 스트레이트성 뉴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 그런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개선이 시급해 보이며 화면 번조가 너무 심한 느낌임. 텔레비전 뉴스의 신뢰도는 시각적 자료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정상적인 화면이 계속 나오면 시청자는 불쾌해 질 수 밖에 없음(이재경 위원)
- 내달 등 문어체 표현 여전히 많이 쓰임. 방송은 구어체를 쓴다는 점을 참고해서 최대한 한자어나 문어체 등의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임(주철환 위원)

▲ 편성 및 제작의견

- 오후 시간대는 뉴스보도채널로서는 황금시간대고 직장인 또는 관공서에서 많이 보는 시간대임(신현택 부위원장)
- 여러 정보를 함께 주는 방식으로 밑에 여러 문자가 돌아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시간 주요뉴스라는 타이틀은 내용에 비추어 실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다수 포함돼 있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음(김용직 위원)
- 정치뉴스 등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뉴스로 다뤄질 때가 있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방송뉴스는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음(주철환 위원)

- 8월은 올림픽 뉴스가 많았음. 모든 지상파는 경기를 중계하는 강점이 있지만, 연합뉴스TV는 그런 면에서 경기결과만을 간단히 소개하는 방식의 뉴스가 되다 보니, 금메달 수에 대한 등수를 전하는 장면이나 메달리스트의 가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했음 .그러나 최근의 올림픽 뉴스가 종합순위나 결과보다 주변정보에 집중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 보도방식이 과거와 비슷한 점이 안타까움(박정숙 위원)
- 뉴스리뷰에 사진으로 보는 뉴스의 구성이 생동감 있는 음악과 함께 화면의 그래픽과 전환기법 그리고 자막의 폰트변화등이 시청자들에게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뉴스를 접하게 함. 단 조금 빠른 화면전환으로 이미 알고 있는 뉴스에 대해선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만, 모르는 뉴스에 대해선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짐(박정숙 위원)
- 더위가 이상기온으로 기록을 경신하는 8월,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가 이어져 연합뉴스TV의 잘못은 아니지만 오보가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음. 간간히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더위로 인한 사고 방지와 날씨에 대한 대처 법등은 신선하게 다가옴(박정숙 위원)

▲ 기타, 긍정적 평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뉴스 제보 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시글 등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음(주철환 위원)
- 북한 태영호 영사 귀순 관련하여 8월 17일 '출발 640'을 시작으로 매시간 뉴스를 통하러 귀순 사실에 더하여 귀순 배경, 북한 엘리트층의 동향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심층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건의 중요성과 향후 대응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편성이었다고 생각됨(김상선 위원)
- 8월 17일 '뉴스워치' 등을 통하여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제3부지 관련 뉴스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심층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김상선 위원)
- 영아 살해라는 참으로 인륜에 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자주 일어나는데, 단순히 보도에 그치지 않고 대책이나 원인에 대해 보도하는 모습이 그나마 좋았음(김용직 위원)
- 이인원 롯데 부회장 자살 사건 등에서 보듯 전화연결과 현장연결 등 빠른 대응이 돋보임. 이 때문에 연합뉴스TV가 라이브뉴스 최강자라는 슬로건이 잘 맞아 떨어짐. 앞으로도 이런 점을 강조해서 뉴스는 연합뉴스TV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주철환 위원)
- 저녁 6시에 방송되는 생생네트워크 내용이 아주 좋다고 판단됨. 보통 지방뉴스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지방의 지자체장이 출연하거나 지방의 축제 등 지방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주철환 위원) - . (끝)